

淨化特輯

당동·방동 일대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. 60~70여개의 가게가 있고 사람도 많아 있는데 택시 타고 물을 사거나 태우거나 놀고 하면 그곳에 오는 정도다.

의 안락한 생활을 부정 되고 개인의 수령과 길에서 만족을 위해 그하고는 더 이상 당을 찾도록 관대도를 위하여 사는 이라한 집단주의의 수령과 당을 위하여 주민의 공생하고 장조하고 인생관으로

며 育苗 移植하는 것
유리하다 苗床은 砂質
흙이 가장 좋으며
때에 밭으로 잘되며
堆肥를 주고 잘 整地
다음 120~150 cm
두둑을 짓고 허튼뿌리 播과 출뿌리 (條播)
를 출뿌리활대는 이랑서
15~18정으로 놓고 풀을 치고 좀 빼
를 린다 음種子가 보이지
정도로 草木灰를 넣고 흙을
리고 6~9cm 깊이 흙을
그위에 저울을 놓고 흙을
두면 3주일 내외로
아하게 된다. 發芽한 후
었던 것을 곧 걸어 흙을
것이다. 그리고 바에 하면
15cm에서 粘質土에
종한 것은 약 20%、粘
土(발육)와 모래를
운 것을 硫酸試
때 85% 감모래에
영작에 파종한
 苗床의 발아한
것을 硫酸試
때 85% 감모래에
영작에 파종한
 苗床의 발아한
것을 硫酸試

의 척도라고 까지 수에 넓지는 가구를 들여놓는 사람도 같혹 있다. 그처럼 새것이나 다를 없는 혹은 아직도 쓸만한 가구들을 처분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물불교환소가 존재할 수 있다. 그나마 대부분의 주부들은 벌써 대로 벌써 농을 바라보면서도 가계에 미칠 주를 할을 걱정하며 「일년 만 더」를 뇌물로 불교환하는 사람들은 적은 동으로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평범한 주를 휘두르고자 하지 않던가. 한 「백화점」 앞에 「보통사람」의 시 바야흐로 「보통사람」 있다.